

금맥은 불과 1m 아래에 있다

미팅의 정석 33

1840년대 미국 서부에서 거대한 금광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이른바 골드러시 때의 이야기입니다.

한 청년이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고 금맥을 찾기 위해 최신 굴착기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는 등 부모님이

물려준 전 재산을 쏟아 부었습니다. 그러나 땅을 계속 파 내려가도 기대한 금은 나오지 않고 흙더미만 쌓였습니다. 청년은 점점 지쳐갔고 인부들의 노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결국 금 캐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. 그는 고물상에 굴착장비를 팔아 인부들의 밀린 노임을 지급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.

그런데 한 달 뒤 그 굴착장비를 구입한 고물상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. 고물상은 헐값에 산 굴착장비를 갖고 그 청년이 파다 만 지점에서 불과 1m를 더 파내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던 것입니다.

청년은 끝까지 도전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.

전 재산이라는 너무나 큰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삶이 큰 교훈을 얻은 그는 새로운 각오로 보험 세일즈를 시작했습니다. 고객들의 냉담한 반응과 외면 속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1m 아래에 내가 찾는 금맥이 있다는 생각을 되뇌며 고객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.

그리하여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계약을 하나 둘 성사시키게 되었고, 마침내 보험업계의 금맥을 찾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.

이 이야기는 미국 초창기의 보험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앤드류 달비(Andrew Darby)의 실제 이야기입니다.



- 인간은 광산에서金を 캐 수 있다. 그러나 인간이 캐 수 있는 더 값진 금은 인간의 두뇌와 마음으로부터 캐는 금이다. - 앤드류 달비

※ <미팅의 정석>은 <http://blog.daum.net/holbon> 에서 전편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.